전남도청열린노조-집행부 주요 현안 면담 결과

열린노조는 최근 행정지원과장 및 회계과장과 면담을 갖고,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개편과 근무환경 등에 관한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함

< 행정지원과장 및 회계과장 면담 내용 >

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인력 불균형 개선

일부 부서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졌음에도 인력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우리 노조는 일은 넘기고 인력은 주지 않는 조직개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에 맞는 적정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또한 업무량이 크게 다른 부서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량을 인사·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함

※ 대책이 없을 경우 공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였음

2 근무지 및 인사 관련 제도 개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예정

※ 특별법상 근무지 보장을 이유로 특정 부서에 특정 지역 출신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조직개편은 현대판 골품제와 다를 바 없는 차별적 정책이며, 이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음(평등원칙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근무지 이동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음

- 지원 대상·금액·시기·범위를 명확히 마련

- 2026년 추경 및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반영
- 일정 기간(2~3년) 근무 후 종전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는 복귀 신청권 인정
- 근무지 이동에 따른 근무평정 인센티브는 역차별 가능성을 고려, 반대의 뜻 표명

※ 근무지 이동자에 대한 근평 인센티브 제공에는 3개 노조 모두가 지난 노사협의체 회의에서 동의한 바 있음

(집행부 입장) 근무지 이동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 구체적인 기준은 노조와 협의하여 마련·공지

3 주요 부서 인력 배치 및 청사 이전 지원

기획·정무 등 주요 부서에 전남도청 출신 직원이 일정 비율(50%)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

또한, 동부청사 등으로 이전하는 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부서가 아닌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이전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사·문서 정리·사무실 설치·컴퓨터 및 인터넷 설치·행정시스템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 요청

(집행부 입장) 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총괄하여 적극 지원

4 청사 간 셔틀버스 및 이주지원

직원들의 청사 간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청사–광주청사, 광주청사–동부청사, 전남청사–동부청사 간 오전·오후 각 1회 왕복 셔틀버스 운영 요청

(집행부 입장) 우선 전남청사-광주청사 셔틀버스를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 이용 수요 확인 후 다른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아울러,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실비 지원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기로 함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입장

도청 가족 여러분! 전남도청열린노조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조직개편과 시·도 통합, 내년도 예산 및 각종 보고자료 등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즐거운 명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운 것은 우리 모두 똑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청사·부서·개인 간 업무량과 인력 배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 조직이 조직간 통합을 외치면서 특정지역 출신은 특정부서에 못들어 가게 제한을 두고, 어떤 조직이 일을 100% 더해 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인력은 5%만 늘려주며, 그리고 남은 95% 인력은 도대체 어디에 배치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특권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을 준수한 조직운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부와 협의하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잠시나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내려놓고 풍요롭고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